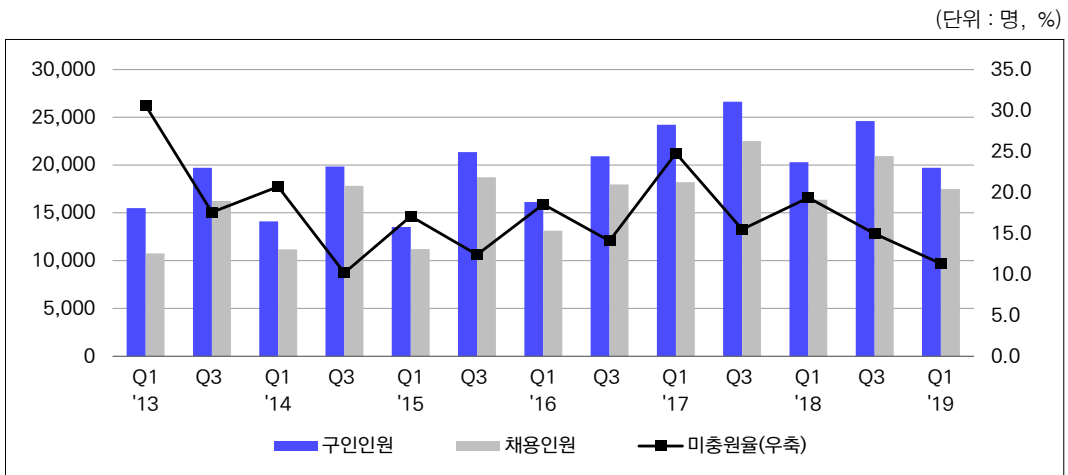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로 본 외국인 인력 수급 현황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¹⁾를 활용하여 외국인 인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구인인원은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19,717명(전년동기대비 582명 감소)이고, 채용인원은 17,488명(전년동기대비 1,115명 증가)임. 외국인력 수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인활동을 하였음에도 충원되지 못한 인원 비중인 미충원율은 11.3%임(전년동기대비 8.0%p 감소).

[그림 1] 외국인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율 추이



- 주 : 1) 구인인원 : 대외적인 구인활동(예 : 홈페이지 모집공고, 신문 등에 채용공고, 고용센터에 구인요청, 친지 등에게 소개를 요청한 경우 등)을 통하여 구인한 인원으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1.1~3.31/7.1~9.30) 사이에 합격자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채용인원이 아닌 최초 모집공고 당시에 채용하려고 했던 모집인원.
 2) 채용인원 :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1.1~3.31/7.1~9.30) 사이에 최종적으로 채용을 확정했거나 채용한 인원.
 3) 미충원율 : [(구인인원 - 채용인원)/구인인원]*100
 4) 외국인은 합법, 불법 모두 포함됨.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는 규모별, 직종별로 사업체의 구인 및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사로, 특히 지역 단위에서 사업체의 인력수급 동향에 있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인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음. 동 조사 중 구인인원은 해당 분야에서 노동수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채용인원을 함께 고려하면 '채용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미충원인원)'로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을 살펴볼 수 있음.

〈표 1〉 지역별 외국인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율

(단위 : 명, %, %p)

지역분류	2018년 1분기			2019년 1분기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율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율
서울	2,345(-968)	1,944(-631)	17.1(-5.2)	2,996(651)	2,838(894)	5.3(-11.8)
부산	967(-81)	825(104)	14.7(-16.5)	1,228(261)	1,175(350)	4.3(-10.4)
대구	570(-55)	383(-34)	32.8(-0.5)	397(-173)	365(-18)	8.1(-24.7)
인천	791(-288)	732(-214)	7.5(-4.9)	667(-124)	582(-150)	12.7(5.3)
광주	434(47)	379(57)	12.7(-4.1)	189(-245)	187(-192)	1.1(-11.6)
대전	361(119)	311(69)	13.9(13.9)	212(-149)	211(-100)	0.5(-13.4)
울산	540(52)	283(0)	47.6(5.6)	314(-226)	314(31)	0.0(-47.6)
세종	58(-54)	46(-17)	20.7(-23.1)	106(48)	106(60)	0.0(-20.7)
경기	6,947(-1,732)	6,087(-720)	12.4(-9.2)	6,934(-13)	5,965(-122)	14.0(1.6)
강원	106(-63)	74(-64)	30.2(11.8)	140(34)	124(50)	11.4(-18.8)
충북	1,159(115)	745(-1)	35.7(7.2)	647(-512)	575(-170)	11.1(-24.6)
충남	1,540(-304)	1,118(-107)	27.4(-6.2)	1,823(283)	1,460(342)	19.9(-7.5)
전북	275(-219)	248(-150)	9.8(-9.6)	511(236)	510(262)	0.2(-9.6)
전남	538(21)	406(19)	24.5(-0.6)	777(239)	748(342)	3.7(-20.8)
경북	1,289(-256)	993(25)	23.0(-14.4)	761(-528)	643(-350)	15.5(-7.5)
경남	2,154(-327)	1,637(-249)	24.0(0.0)	1,887(-267)	1,574(-63)	16.6(-7.4)
제주	224(76)	163(75)	27.2(-13.3)	129(-95)	111(-52)	14.0(-13.3)

주 · 자료 : [그림 1]과 동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

○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 지역의 외국인 인력수급에 차이가 존재함²⁾

- <표 1>에서 2019년 1분기 외국인 구인인원은 경기(6,934명), 서울(2,996명), 경남(1,887명), 충남(1,823명), 부산(1,228명) 순으로 많고, 이 중 서울, 부산, 충남지역은 전년동기에 비해 외국인 구인인원이 증가함.
- 외국인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의 비중인 외국인 미충원율은 충남(19.9%), 경남(16.6%), 경북(15.5%), 제주(14.0%), 경기(14.0%)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서울(5.3%), 부산(4.3%), 전남(3.7%)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또한 울산, 대구, 충북, 세종, 전남지역은 전년동기에 비해 미충원율이 크게 감소함.

2) 2019년 1분기 지역별 내국인 구인인원은 서울(233,675명), 경기(172,684명), 부산(75,889명), 경남(41,619명), 인천(36,795명)지역 순으로 많고, 내국인 미충원율은 경북(12.6%), 제주(12.6%), 경남(12.1%), 서울(10.8%), 충북(10.6%)지역 순으로 높음.

〈표 2〉 지역별, 산업별 외국인 구인, 채용인원 및 미충원율(2019년 1분기)

(단위: 명, %)

미충원율		충남	경남	경북	경기	서울	부산	전남	전국
제조업	A	1,536	1,375	627	4,648	82	375	612	11,747
	B	1,205	1,131	534	4,236	82	324	583	10,432
	C	21.5	17.7	14.8	8.9	0.0	13.6	4.7	11.2
건설업	A	0	371	27	544	534	0	90	1,594
	B	0	316	27	153	534	0	90	1,149
	C	-	14.8	0.0	71.9	0.0	-	0.0	27.9
도매 및 소매업	A	49	25	25	339	230	0	37	773
	B	37	25	0	227	230	0	37	593
	C	24.5	0.0	100.0	33.0	0.0	-	0.0	23.3
숙박 및 음식점업	A	49	0	0	210	355	1	0	710
	B	45	0	0	210	355	1	0	698
	C	8.2	-	-	0.0	0.0	0.0	-	1.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A	0	14	1	56	390	0	5	531
	B	0	0	1	56	320	0	5	447
	C	-	100.0	0.0	0.0	17.9	-	0.0	15.8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A	57	52	0	82	507	660	3	1,469
	B	57	52	0	82	424	660	3	1,382
	C	0.0	0.0	-	0.0	16.4	0.0	0.0	5.9
교육서비스업	A	79	40	67	859	668	116	3	2,189
	B	79	40	67	812	668	114	3	2,135
	C	0.0	0.0	0.0	5.5	0.0	1.7	0.0	2.5

주·자료 : 1) [그림 1]과 동일. -는 구인인원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 값임.

2) A, B, C는 각각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율임.

3) 외국인 구인, 채용인원이 많으면서 미충원율도 높은 지역으로 충남, 경남, 경북, 경기지역을 선택하고, 외국인 구인, 채용인원이 많으면서 미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서울, 부산, 전남지역을 선택하여 제시함.

- 외국인력 수급현황을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월등히 많고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에서도 외국인력 수요가 많음.3)
 - 충남, 경남, 경북지역은 외국인 구인, 채용인원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미충원율도 높게 나타나는 편임. 경기지역에서도 제조업에 외국인력 수요가 집중되어 있으나 미충원율

3) 인력 수요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그 직종에서도 마땅히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산업별로 봤을 때 제조업과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영향으로 직종으로는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에서 구인인원이 가장 많고,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기계관련직, 건설관련직, 재료관련직 순으로 구인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직종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기준임).

- 은 낮은 편인 반면, 건설업에서 채용에 실패한 미충원인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에서 외국인 노동수요가 많고 미충원율도 높은 지역인 충남, 경북에서는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기계관련직, 재료관련직, 화학관련직에서 외국인 구인인원이 많으나 이 중 기계관련직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노동수요에 비해 채워지지 못한 일자리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⁴⁾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을 비롯한 제조업 관련 직종과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관련직에서 미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건설관련직에서 외국인 미충원율이 높음.
 - 서울지역은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위주로 외국인력 수요가 존재하고 이들 산업에서는 필요한 외국인력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수요에 비해 채워지지 못한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 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건설관련직 미충원율은 낮으나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영업 및 판매관련직에서 외국인 미충원율이 높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활용해 2019년 1분기 기준 외국인 인력수급 현황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 미충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로 충남, 경남, 경북, 경기지역에서 외국인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높게 나타남. 이들 지역에서는 산업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공통적으로 제조업(직종별로는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화학관련직 등)에서 외국인 일자리 매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각 지역별, 산업별(및 직종별)로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구인활동을 하였음에도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외국인력 수급 불일치가 심한 지역과 산업(및 직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해당 지역의 산업, 직종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KLI**

(이기쁨, 동향분석실 연구원)

4) 경남지역에서도 제조업과 건설업 위주로 외국인 인력수요가 존재하나 미충원율도 높아 이와 관련된 직종(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기계관련직, 재료관련직, 화학관련직, 건설관련직)에서 모두 외국인 미충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